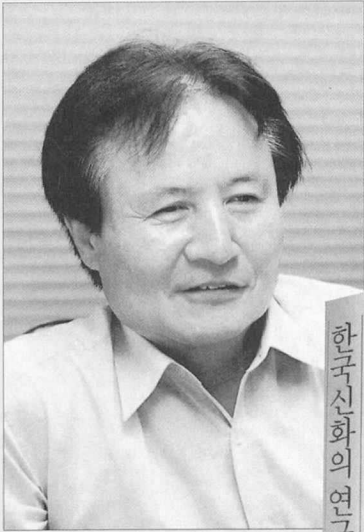


신성성 바탕으로 한국 신화의 맥 짚어

《한국신화의 연구》 펴낸 서대석 교수



서대석 교수

집문당/A5신/580면/28,000원

서대석 교수(60, 서울대 국문과)가 펴낸 《한국신화의 연구》(집문당)는 건국신화와 무속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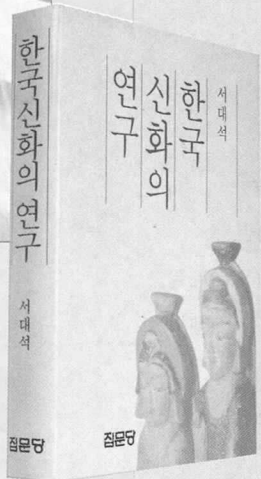
전반의 자료를 종합해 한국신화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제석본풀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서교수는 신화연구에서 일찌감치 선편을 잡았다. 이 책은 서교수의 본격적인 신화연구에 대한 세번째 성과물로 《한국무가의 연구》(문학사상사)와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을 잇는다.

신화전승집단의 성격 밝혀

이 책은 '신성관념'에 주목해 신화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화연구와 다르다. 서교수는 신화에 함축된 전승집단의 신성지향 성격을 파악하면서 인류학의 신화해석 이론에 기대어 신화적 표현 속에 가려진 역사적 진실을 찾아낸다. 그 결과 한국신화가 '천신신앙'과 '수신신앙'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이뤄졌음을 밝혔다.

"신화연구의 핵심은 신성관념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신성성을 파악하다보면 신화전승집단의 실체와 성격이 밝혀지죠. 나아가 신화에 반영된 통치집단의 정치성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서교수는 신성성이 고정불변의 관념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신성시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하면 부처를 더욱 신성시한 때도 있었고, 태양을 포함한 일월성신과 우주 전반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천신(天神)이란 신성관념이 도입되기도 했



건국신화와 무속신화는 그 동안 꾸준히 연구돼왔지만 특정신화 연구에 지나치게 함몰된 한계를 보여왔다. 서대석 교수의 이번 저작은 신성성에 주목해 신화의 본질을 심도 있게 탐색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서교수는 방대하게 흩어져 있던 한국의 신화들을 한데 모으고, 주변국의 신화와도 비교연구해 신화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 서교수는 또 신화연구는 신화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을 찾는 연구와 변모과정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서교수의 학문적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은 건국신화에 나타난 신화구조의 특징을 밝힌 대목이다. 그는 한국의 건국신화를 '결혼과 출생의 전개 순서'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결혼에서 탄생으로 전개되는 북방신화와 출생에서 결혼으로 전개되는 남방신화가 그것이다. 예컨대 북방신화인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는 시조의 출생 이전에 시조부모의 결혼과정이 드러나고, 남방신화인 <혁거세신화>와 <수로왕신화>는 시조의 부모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조가 탄생하고 이어서 시조의 즉위와 결혼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인류는 결혼과 출생이라는 두가지 행위소의 반복에 의해 존속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이 먼저냐, 출생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성격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죠. 시조 부모의 결혼이 먼저 이뤄지고 시조의 출생을 이야기한 북방신화는 건국의 시조가 최초의 군왕이 아니라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죠. 반면에 남방신화는 시조가 최초의 군왕으로서 인류사회에서 처음으로 국가라는 큰 사회가 이뤄짐을 말하는 것이구요."

서교수는 백제의 건국신화가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자료와 연구가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

나 비류의 기록이 있지만 그것은 역사나 전설에 가깝지 신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백제의 건국신화 연구는 시조신에 대한 제의 양상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변국 신화도 비교·연구해

서교수는 무속신화 연구에도 각별한 애정을 보인다. 무속신화를 창세시조신화, 생산신화, 저승신화, 가정신화 등으로 나눠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고 전승본의 대비를 통해 신화의 변이양상과 각 유형의 구조적 의미를 분석했다. 또 한국신화에 나타난 북의 성격을 삼부인(三符印)과 관련해 검토했다. 그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삼부인을 '거울·칼·북'이라 새롭게 해석한 부분은 흥미롭다. 주변국 신화에도 관심이 많은 서교수는 한국신화와 만주 및 일본신화를 비교 연구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신화연구는 건국신화를 비롯한 '중심' 신화연구에만 집중돼왔습니다. 이제는 주변으로 눈을 돌려 상대적으로 등한시돼온 결과지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신화는 단독 신화연구가 필요합니다."

서교수의 신화연구는 올해로 스무해를 맞았다. 무가와 군담소설, 구비문학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신화연구의 한 매듭을 지었다. 그럼에도 그의 학문적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그는 "앞으로 판소리와 우화소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민담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옥순 기자